

일반 논문

고등학생운동 참여자의 사회진출에 관한 연구*

고등학생운동의 집합적 정체성 형성과 그 영향

전누리 _중앙대학교 박사과정

논문 요약

본 연구는 1980년대 중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 사회에 등장한 고등학생운동의 참여자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 선택한 사회진출의 과정과 그에 운동의 집합적 정체성이 미친 영향을 확인한다. 억압적 교육 현실에서 일군의 중·고등학생들은 기존 사회운동의 직·간접적인 영향 아래 사회변혁과 강한 민중 지향성을 띤 운동의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했다. 특히 민중을 지향하는 변혁 주체로의 자기 인식, 사회변혁의 전망은 사회진출에 관해 사회가 우위적 가치를 부여한 대학 진학 외에도 노동자 민중운동 참여, 고등학생운동의 지원·지도라는 다양한 분야로의 사회진출을 가능케 했다. 이를 확인한 본 연구는 다음의 사항을 주장한다. 한 세대의 정치적 의식 형성은 세대 간의 영향 속에 이뤄지기에 단절론적인 세대논의를 경계해야 한다. 사회운동 간 관계와 그 영향은 상호작용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특정 사회운동이 가져온 결과를 그 운동이 내

* 이 논문은 2018년도 중앙대학교 CAU GRS 지원을 받아 본인의 석사학위 논문 「고등학생운동 참여자의 사회진출에 관한 연구」(2016)를 수정·보완한 결과물이다. 자신의 경험을 기꺼이 이야기해주신 구술자들과 부족한 연구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후속 연구를 통해 논문의 부족한 지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DOI: <http://dx.doi.org/10.31008/MV.41.7>

건 정치적 차원의 목표와 그 실현 여부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참여자의 생애적 차원의 변화 등을 포함하여 보다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주요어:** 고등학생운동, 사회변혁, 민중운동, 정치사회화, 사회진출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한국사회에서 민주화의 요구가 제기되던 1980년대 당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및 자주성 보장, 열악한 교육 여건 개선 등 교육민주화 요구 또한 빗발쳤다. 여기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으로 대표되는 교사운동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의 움직임 역시 존재했다. 4·19혁명 등 한국 현대사에 간헐적으로 등장했던 중·고등학생들의 저항적 움직임이 다시금 본격화되어 나타난 것이었다. 입시 경쟁과 폭력적 학교 규율을 경험한 당사자로서 학교교육에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학생들은 기존 사회운동의 직간접적인 영향 아래 지속적·집단적인 저항적 흐름을 형성해냈다. 학교 별, 학교 간 소모임을 바탕으로 KSCM(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 흥사단 고등학생아카데미(흥고아) 등 합법 공개단체에 참여하며, 학생회 직선제, 입시 경쟁 교육 반대 등 학교교육의 변화를 요구했고, 나아가 사회변혁을 그 목표로 삼았다. ‘고등학생운동’이라 일컬어진 이 흐름은 1980년대 중후반부터 출현하기 시작해 전국 250여 개 학교에서 연인원 47만 명이상이 참여한 1989년 전교조 사수 투쟁이라는 대중적 분출을 거쳐,

1990년대 중반 전후로 소멸되어갔다(김용희 2001; 양돌규 200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2010, 615-616).

고등학생운동은 반학교문화처럼 일시적이고, 개인적인 반항 같은 저항 형태(윌리스 2004)와는 양상과 성격이 달랐다. 그 명칭처럼, 사회운동으로서 독자적인 의제의 제시와 참여자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동시에 그 재생산 구조를 형성하며, 학교와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저항의 움직임을 만들어냈다. 특히 사회운동 참여는 참여자의 정체성 변화를 수반하는데(신진욱 2013, 71), 고등학생운동의 형성과 참여 속에 일군의 학생들은 자신을 운동의 참여자 및 활동가로 정체화(identification)하면서, 대학 진학과 이를 위해 입시 경쟁에 매진할 것을 요구하는 학교교육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안적 삶을 모색했다. 이는 졸업 이후 진로 선택이라는 생애적 차원의 문제와 맞물렸다. 고등학생운동이 고등학생이라는 임시적인 위치에 기초해 형성되었고, 참여자들은 졸업과 성년 진입 이후에는 운동의 '당사자'로서는 계속 참여할 수 없었던 까닭에 고교 졸업 이후의 사회진출을 모색하고 결정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민주화를 추동해냈다고 평가받는 1980년대 (대)학생운동에 대한 연구는 폭넓게 이뤄졌다. 운동의 전개과정과 특성에 대한 분석을 넘어, 사회운동세대로서 소위 '386세대'라는 세대집단의 규정 속에 운동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특유의 문화적 경향을 확인하였으며(조대엽 2007), 그 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의 생애사를 살펴보며 정치적 지향의 재구성을 확인하는 논의(이희영 2006)까지 진행되었다. 또 언론을 통해서도 2000년 이후 등장한 (대)학생운동 출신 정치인과 세대효과에 대해 주목하며, 86세

대로 호명된 이들의 운동경험과 이후 삶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 후속 세대, 즉 포스트 86의 첫 존재라 명명할 수 있는 고등학생운동에 참여한 집단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그들은 기존 사회운동의 영향 아래 청소년 시기에 급진적 정치사회화를 경험하고 독자적 운동을 형성하면서 다양한 사회운동으로 진출을 시도했던 존재들이었다. 86세대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에 비해 그 후속 세대로서 이들의 존재, 혹은 그들이 참여한 운동과 그 경험이 성년 진입 당시 이뤄진 진로 선택 등 생애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목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 연구는 고등학생운동 참여자들이 고교 졸업 이후 선택했던 사회진출의 과정과 의미를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운동의 집합적 정체성(Collective Identity) 형성과 그 영향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운동의 집합적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둘째, 고등학생운동의 집합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운동 참여자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사회진출에 관해 어떤 고민과 실천을 전개했는가? 본 연구는 (대)학생운동, 교사운동 등 기존 사회운동의 영향 아래 일군의 중·고등학생들이 고등학생운동의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에 수반된 민중 지향성을 띤 사회변혁 주체로서의 자기 인식을 통해 사회가 요구했던 대학 진학이란 진로 외에도 노동 현장으로의 진출, 고등학생운동의 지원·지도 등의 사회진출 경로를 적극적으로 모색, 실천할 수 있었다고 본다.

학교 규율에 대한 중·고등학생의 저항을 다룬 기존 연구들은 경쟁교육 아래 저항 유형을 정리하거나(구수경 1997) 사회운동에 관한 이론적 자

원을 이용해 학교규율체계에 대한 부당한 인식 경험이 어떻게 저항으로 연결되는지를 분석하며 그 구체적 참여 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류지영 2001; 백초록 2003; 정혜원 2006). 그러나 억압에 대한 저항 이후 개인적 차원의 변화에 대한 분석, 즉, 운동의 참여 경험이 자기 삶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진로 등 자기 미래의 구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의 설명은 공백으로 남아 있다. 이런 한계는 고등학생운동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연구에도 적용된다. 1960~70년대 형성된 지배 권력을 정당화했던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학생들의 저항으로 1980년대 고등학생운동을 언급한 김용희(2001)와 민주주의 이행기 당시 교육민주화운동의 성격을 띤 고등학생운동의 전개과정을 다룬 양돌규(2006)의 연구는 그동안 주목되지 않았던 고등학생운동을 교육 및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라는 주체적이며 정치적인 움직임으로 분석해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에도, 기존 사회운동과의 관계나 영향에 대한 분석, 또 저항과 운동의 참여에 따른 참여자의 변화나 참여자의 졸업 이후 사회진출에 관한 분석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그 공백을 채우고자, 이 연구는 민주화운동사에서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1980년대 중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나타난 고등학생운동 참여자들의 사회진출에 대한 고민과 그 진출의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동시에 이를 추동해 낸 고등학생운동의 그 집합적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억압적인 교육과 사회를 바꿔내기 위한 당시 고등학생들의 지속적이며 집단적인 저항이 기존 사회운동의 영향 아래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확인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당시 한국사회에

서 저항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급진적인 정치적 사회화 과정과 그 내용, 나아가 사회운동이 참여자 개인들의 생애적 차원에 가져온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기초

이 연구는 일군의 중·고등학생들이 기존 사회운동의 영향 아래 지속적·집단적 차원의 저항으로 고등학생운동이란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생애와 관련된 졸업 이후 진로에 있어서 사회가 우위적 가치를 부여했던 대학 진학 외에도 다양한 사회진출을 모색했던 과정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집합적 정체성의 개념과 사회운동이 다양하고 폭넓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논의를 그 이론적 기초로 삼는다. 먼저 사회운동의 결과에 대한 논의를 살펴본다. 그 논의는 사회운동의 결과를 운동이 내건 정치적 목표의 달성 여부만으로 살피는 기존의 단기적·도구적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운동이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특히 참여자 개인의 생애적 차원에도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1) 사회운동의 결과: 생애적 차원의 변화

사회운동의 전개와 그 과정을 다루는 기존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운동

이 내세웠던 정치적 목표와 이를 쟁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다루는 한편, 그 운동이 가져온 결과에 있어 정책 등의 실행 여부에 초점을 맞춰 왔다. 지우그니에 따르면, 이러한 연구 경향은 부분적으로는 사회운동의 연구에서 자원동원론(resource mobilization)과 정치과정론(political process)이 주류적인 위치를 차지했다는 데에 원인이 있는데, 적대자를 상대로 정치적 기회구조에 맞춰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동원해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사회운동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사회운동이 가져온 결과를 보다 엄밀히 측정하기 위해 입법 등 정책의 변화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던 측면이기도 했다(Giugni 1999, xxi-xxii).

분명 이러한 연구 경향은 사회운동의 결과에 있어서, 운동이 정치적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며, 또 운동의 성공과 실패의 동학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점에서 실천적으로도 유용한 이해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운동이 의도했던 목적에 따라 얼마나 효과적으로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왔는지 혹은 그 운동을 통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란 좁은 차원에 관심을 쏟는 일종의 단기적·도구적 시각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 즉, 사회운동의 결과는 제도의 변화 등 정치적 차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 그렇기에 사회운동이 사회나 문화 등 보다 폭넓은 영역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다양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살피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맥아담은 운동의 정치제도적 결과에 대한 관심에 비해 사회운동과 연결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의도되지 않은 사회적 혹은 문화적 결과에 대해 관심이 적었음을 지적하는데, 여기에는 운동 활동과 연결된 생애적(biographical) 혹은 생애

과정(life-course) 차원의 결과 역시 포함된다(McAdam 1999, 117).

경험적 연구들은 사회운동의 참여가 참여자 개인의 변화를, 나아가 참여를 통한 운동 정체성의 수용이 초기 참여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Kiecolt 2000, 113-114). 참여 경험만으로 사회운동이 개인의 생애적 차원에 영향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하는 건, 운동이 그 결과에 있어 정치적 차원의 구체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또 소멸하게 되더라도 참여 경험이 있는 참여자를 남긴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운동은 그 목표의 실현 여부와는 별개로, 참여자 생애에 운동 참여의 경험을 남기는 것을 통해, 해당 운동 혹은 다양한 운동의 계속된 참여를 가능케 하거나 설령 참여를 중단하더라도 그 우호적 지지자로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즉 운동은 그 운동의 목표 실현 여부라는 단기적 차원을 넘어 보다 중장기적인 차원으로, 해당 부문의 운동이라는 한정된 영역을 넘어 보다 폭넓게 사회운동진영 전반으로 영향을 미쳐 특정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는 다시 사회 전반의 변화라는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에 사회운동이 만들어낸 결과의 일환으로, 운동 참여 경험에 따른 생애적 차원의 변화와 그 효과는 개인적 변화 이상의 의미로 충분히 주목되어야 한다.

패시와 몬스츠는 운동의 생애적 결과를 집합적 결과로서 운동의 수혜자, 활동가 코호트/세대에 남긴 결과와 개인적 결과의 차원으로 활동가의 삶에 남겨지는 것으로 분류한다. 특히 개인적 결과를 두 가지 결과로 구분해서, 단기 결과로서 활동 중에 세계관, 정체성 등의 변화를 겪는 것과 장기 결과로서 참여 이후에도 초기 참여의 영향이 지속되는 것으로 구체

화한다. 특히 후자와 관련 정치적 성향의 지속은 물론, 가족과 직업 등 개인의 사적 삶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Passy and Monsch 2018, 500-504). 이러한 변화는 자신이 겪은 사회적 경험을 해석하는 가운데 생성되는 특정 가치의 지향이 당위로서 내재화되어 특정한 자아 및 사회적 이상(Ideal)을 추구하게 되는 변화로도 이해할 수 있다(신진옥 2018, 23-24). 강조될 점은 사회운동이 운동 참여자 개인에게 변화를 일으킨다면, 그들이 소속되어 경험했던 특정한 내용을 지닌 사회운동은 그 변화 방향에 있어 일종의 준거점으로 역할을 했을 것이란 점이다. 이 연구는 참여자 개인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그들이 참여한 운동의 성격을 살펴보기 위해 집합적 행위의 의미체계 구성과 집합적 행위자로서의 자기 인식을 강조하는 집합적 정체성을 주목한다.

2) 집합적 정체성

본 연구가 이론적 기초로 삼는 집합적 정체성은 사회운동의 구성주의적 접근의 개념 중 하나다. 구성주의적 접근은 집합적 행동이 촉발되기 위해서는 행위자들이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고 상황을 해석하도록 만드는 상징적·문화적 차원에서의 구성이 필수 조건임을 주장했다. 즉, 운동의 출현은 정치적 기회구조의 유무 외에, “여러 요인이 하나의 의미 세계로 짜여 잠재적 참여자들의 관심과 만나 공명을 일으켜”(정수복 2002, 137) 가능하다는 점, 운동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의미들과 그 해석과 구성 과정에 관심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Klandermans 1992, 77-78).

집합적 정체성 개념은 이러한 접근을 바탕으로 행위와 구조의 이분법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다. 멜루치(Melucci)는 집합행동을 개인적 변수로 혹은 사회적 구조만으로 설명하려 했던 기존 입장들은 이원론적인(dualism) 한계가 있다고, 즉 행위자를 공통의 행위로 구성하는 과정이나 행위자가 집합행동에 참여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 대안으로 멜루치는 집합적 행위자를 단일한 행위자가 아닌 집합적 행위의 의미 생산 과정, 즉 집합적 정체성이 형성, 유지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Melucci 1988, 331-332; 이선미 2007, 147). 집합적 정체성은 행동체계의 구성, “행동이 발생하는 제약들과 기회들의 장(field)과 행동의 지향성들(orientations of action)과 관련된 몇몇 개인에 의해 구성되는 상호작용적이며 공유되는 정의”라고 주장한다. 특히 집합적 정체성의 구성에 수반되는 집합행동의 참여자들을 하나로 묶는 “우리(we)”의 형성은 개인들이 연결된 관계들의 반복적 작동을 통해 구성되고 타협되는 점을 강조한다(Melucci 1995, 43-44).

멜루치는 집합적 정체성의 구성 요소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한다. 첫째, 행동의 목표들, 수단들, 장에 대한 인지적 정의로, 사회 혹은 특정한 집단들에 공유되고 있는 언어를 통해 정의되고 또 기존에 주어진 일련의 의례들, 관행들, 문화적 산물들에 통합되지만, 때때로 모순적인 내용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둘째, 과정으로서의 집합적 정체성은 상호작용하고, 소통하고,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고, 결정 등을 만들어내는 행위자들 사이의 활발한 관계들의 네트워크를 나타낸다. 조직 형태들이나 리더쉽 모델, 의사소통의 채널과 기술들은 구성적 부분이다. 셋째, 집합적 정체성은 개

인들이 자신을 집단의 한 부분으로 느끼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감정적 투자를 요구한다. 집합적 정체성은 절충 가능한 것이 아닌데, 집합행동에의 참여가 비용-이익 계산으로 환원될 수 없는 감정에 기반하기 때문이다(Melucci 1996, 70-71).

집합적 정체성이 형성된다면 복수의 행위자들은 자신들을 ‘우리(we)’로, 즉 동일성(unity)과 연속성(continuity)을 지닌 집합적 행위자로 인식하고, 또 자신의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들, 행위자와 관련된 과거와 미래 사이의 관계들을 결부시켜 생각할 수 있게 된다(Melucci 1995, 46-48). 테일러와 위티어는 집합적 정체성에 수반되는 집합적 행위자가 구성되는 과정을 (1) 지배적 사회로부터 특정 집단 범주를 구별해내는 경계 짓기 (2) 해당 집단의 구조적 조건을 설명하는 사회적 의식의 발전 (3) 일상생활의 정치화를 통한 해당 집단의 근본적 차이점을 가치화하는 것으로 구체화한다(Taylor and Whittier 1992, 122). 무엇보다 사회운동으로서 집합적 행위자인 ‘우리(we)’의 형성에는 정치화(politicalization)가 필수적이다. ‘우리(we)’와 구별되고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여겨진 ‘그들’에 대한 대립적 정체화를 포함하며, 이는 다시 우리의 내적 정체성 형성과 강화란 역동적 상호작용의 과정을 포함한다(신진욱 2013, 74).

한편, 멜루치는 집합적 정체성의 존재가 신사회운동이 구사회운동과 구별되는 핵심 요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집합적 정체성의 형성은 모든 집합적 행동에 있어서 핵심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Taylor and Whittier 1992, 105; Scott et al 1994, 189). 특히 이 집합적 정체성의 형성 과정은 그 참여자들이 놓여 있는 역사적·사회적 맥락에 유리될 수 없다는 점이 더

욱 강조되어야 한다(고동현 2007. 113). 그 맥락에는 정치적 기회구조는 물론, 한 사회를 구성해온 역사적 사건들, 특정 운동 담론을 구성하기 위해 이용 혹은 재구성하려는 문화적 전통 등이 포함될 것이다. 또 사회운동이 전적으로 독자적으로 형성되기보다는 마이어나 위티어가 여파(Spill-over)란 개념을 통해 기존의 사회운동이 새롭게 출현하는 사회운동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설명하는 것처럼(Meyer and Whittier 1994), 한 운동의 집합적 정체성의 형성에는 이미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당대의 사회운동이 인적, 조직적 연계를 통해 직접적으로, 혹은 운동의 담론과 그 문화, 예컨대 운동의 의제, 조직 방식, 운동규범, 저항 방식의 레퍼토리(Repertoires) 전파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Tarrow 1992, 197; Meyer 2002; Whittier 2002). 즉, 운동 행위자들은 기존 사회운동의 직·간접적인 영향 등 역사적·사회적 맥락 아래 특정한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

정체성 혹은 집합적 정체성의 개념을 통해 사회운동을 다룬 국내 연구들은 공공 정체성을 지닌 운동가가 참여 속 상호작용을 거쳐 다시금 공공 정체성이 확대되었다는 정체성 변동의 과정이나(이승훈 2005), 특정한 운동의 집합적 정체성 형성과 그 변화가 어떤 저항행위를 낳는지(김재민 2004), 혹은 운동이 형성한 집합적 정체성이 제도화 등의 과정 속에서 겪는 갈등과 그 재구성 과정에 관심을 가졌다(전민주 2012). 이 연구는 기존 사회운동의 영향 등 특정 사회적 조건에서 이뤄지는 집합적 정체성의 형성과 운동 참여자의 생애적 변화라는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고등학생운동이 기존 교사운동 및 (대)학생운동의 영향을 받으며 일탈적 반항 혹은

학교교육의 변화 요구에 그치지 않고, 체제 전반의 변화를 갈망하는 집단적 저항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하며, 새로운 운동의 출현이 기존 사회운동의 영향과 무관한 독자적 산물이 아닌 당대 운동의 영향 속에 형성된다는 것, 이는 이전 세대의 특정한 정치적 가치와 태도가 후속 세대에 이어진 것임을 주장한다. 또한, 집단적 행위자로서의 자기 인식을 수반하는 집합적 정체성의 형성이 운동 참여자의 변화를 가져온 원인이자 그 방향의 준거점이 된다는 점을 주목한다. 그 결과 졸업 이후 및 성년으로의 진입 당시, 20대의 삶을 포함해 향후 삶의 미래를 결정짓는 사회진출의 경로에 있어 기존 사회가 요구한 대학 진학 외에도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고 선택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는 점을 확인한다. 그리고 사회운동이 운동 참여자에게 있어 생애적 차원의 변화라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은 물론, 특정 운동으로의 사회진출을 통해 다른 사회운동에 다시금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주장한다.

3. 연구 방법

1980~90년대 등장했던 고등학생운동의 형성과 그 내용이 운동 참여자들의 고등학교 졸업 이후 사회진출의 고민과 진출 과정에 미친 영향을 대상으로 삼는 이 연구는 문헌 자료의 분석과 더불어 구술면담을 통해 수집한 구술 자료의 분석을 통해 진행됐다. 문헌 자료 외에 구술 자료를 활용했던 것은 권위주의 정권 당시에 등장했던 고등학생운동이 탄압을

피하기 위해 주요한 결정을 내린 회의 내용이나 활동을 담은 기록을 폐기하거나 기록 자체를 아예 남기지 않으려 했던 관행을 갖고 있었기에 관련 자료가 부족한 상황 때문이었다.

구술사는 실증주의적 역사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측면에서, 한 사회의 권력관계가 반영된 공식적 역사 서술의 권력 편향성 속에서 배제되어 온 일반 사람들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그들의 삶과 역사를 기록하고자 함으로써 그동안 공식적 기록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회적 사실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 즉 보다 아래로부터의 시각에서 민주적 역사 서술로의 가능성을 만들어낸다(Thompson 2000). 예컨대 피해자의 증언 구술을 통해 국가폭력의 피해 등 문헌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구체적 사실을 드러낼 수 있다(한국구술사연구회 2005). 또 구술사 연구는 그 질적 연구의 특성으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행동에 대한 동기나 이유 등에 대한 확인은 물론 그들의 일상생활과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수용과 일탈, 복종과 저항 등 의식과 정체성의 형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김귀옥 2014, 108-109).

이를 주목하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구술 면담을 통해 구술 자료를 수집했다. 구술면담은 생애와 활동 경험에 질문을 던지되, 구술자가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구술자의 말을 끊지 않고 자유로이 구술할 수 있도록 했다. 물리적·시간적 한계로 구술자는 당시 서울 지역에서 활동했던 이로 한정했다. 구술자의 대략적인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1〉 구술자 인적 사항

구술자	성별	입학	고 3	출신 학교	활동 조직	고교 졸업 이후 사회진출 과정
A	남	1989	1991	신목고	공실위	대학 입학 및 고등학생운동 지원·지도 활동
B	남	1986	1988	동북고	학내 소모임, 서고련	천안 지역 공장→ 건설 노동→ 대학 입학
C	여	1986	1988	정화여상	학내 소모임	병원 사무직 입사→ 우리교육 출판사 활동→ 구로공단
D	남	1989	1991	송문고	학내 소모임, 흥고아	성수공단→ 군 복무 후 구로공단
E	남	1989	1991	구로고	학내 소모임	지역 청소년단체 설립 및 고등학생운동 지원·지도활동→ 공안사건 구속
F	여	1988	1990	동명여고	흥고아, 푸른나무이야기모임, 학내 소모임	구로공단
G	남	1989	1991	명지고	학내 소모임	대학 입학 및 학생운동
H	여	1988	1990	풍문여고	학내 소모임	구로공단
I	남	1986	1988	서울공고	학내 소모임, 서고련	전교조 학생사업국 활동→ 서울지하철
J	여	1993	1995	성신여고	학내 소모임, KSCM	대학 입학 및 학생운동
K	여	1990	1992	한성여고	학내 소모임, 흥고아	노동 현장 진출 준비→ 구로공단
L	남	1991	1993	대일고	KSCM	재수→ 대학 입학 및 학생운동
M	남	전교조 해직 교사, 본부 초기 학생사업국 활동				
N	여	Y대 학생운동 및 노동운동, 1990년대 초·중반 흥사단 지도위원 활동				
O	남	J대 학생운동 및 노동운동,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KSCM 지도간사 및 푸른나무출판사 활동				
P	남	Y대 학생운동,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흥사단 지도위원 활동				
Q	남	Y대 학생운동, 1980년대 말 1990년대 중반 언더모임 활동				
R	남	1989	1991	한성고	벗사랑, KSCM	구로공단→ 대학 입학 및 학생운동
S	여	1990	1992	국악예고	흥고아	대학 입학 및 학생운동
T	남	1988	1990	화곡고	학내 소모임	대학 입학 및 고등학생운동 지원·지도 활동→ 학생운동
U	남	1989	1991	한성고	흥고아	대입 실패, 노래패와 청년아카데미 활동→ 군복무 후 흥고아 지도위원 활동

4. 고등학생운동의 집합적 정체성 형성과 그 내용

고등학생운동 참여자가 졸업 이후 진로와 관련해 전개한 사회진출의 고민과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이 연구는 이에 영향을 미친 고등학생운동의 집합적 정체성 형성과 그 내용을 살펴본다. 사회운동이 그 참여자에게 생애적 차원의 변화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 사회운동은 그러한 변화의 방향에 일종의 준거점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고등학생운동의 집합적 정체성의 형성과 그 내용을 보다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운동이 태동했던 사회적 맥락을 살펴본다.

1) 역사적·사회적 배경: 억압적 교육 현실과 쇄도하는 사회운동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교육 현실은 고등학생운동이 출현할 수 있었던 기본 바탕이었다. 한국의 중등교육은 1960~70년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 필요한 노동력의 양성 역할을 수행하며 양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했는데, 1975년 31.3%였던 고등학교로의 취학률이 1985년에는 48.8%, 90년에는 79.4%까지 이르는 중등교육의 보편화가 이뤄졌다(교육인적자원부 2003). 그러나 양적 확대 이면에는 억압과 폭력적 현실이 있었다. 두발규제, 체벌 등 일제 강점기부터 나타난 규율과 훈육 조치는 유신 시기 ‘교육의 병영화’ 과정을 거치며 지속됐다. 1982년 통치 정당성을 위한 유회정책의 일환으로 두발·교복을 자율화하는 정책이 실시되었지만 그 억압적인 기본 성격은 여전했다(김진균 외 1997;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외 1989,

65-66; 이해영 외 1990, 229-230; 정재결 1989, 151).

교육의 억압과 통제적 성격은 권위주의 정부의 필요였던 동시에 대학의 서열과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대체로 일치하던 결과로(윤종희 2005, 47) 인한 명문대학으로의 입시 경쟁과 조용한 결과였기도 했다. 입시 경쟁의 과열로, 전두환 정부는 1980년 대입 정원 확대와 과외 금지를 담은 7.30 교육개혁조치를 발표했지만, 경쟁의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못한 미봉책이었고, 입시 경쟁은 계속 격화되었다. 학생들의 심각한 자살 문제로까지 이어졌는데, 1986년 서울사대부여중 3학년 학생의 유서 중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구절을 제목으로 한 상업영화가 제작될 정도였다(양돌규 2006, 81; 유윤종 2006). 중요한 건 이를 경험한 학생들의 삶이었다. 규율과 통제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경험은 저항의 시발점이었다. “그냥 정말 숨 막히는 곳이잖아요. (...) 그 학교라는 공간에서 숨을 쉬고 싶었어요. (...)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 능동적인 사람일 수 있는데 우리를 너무 바보 취급하는 거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거 같아요.”(구술자 K) 폭력적인 교육 현실을 경험하며 이를 변화시키고자 한 운동에 참여했던 것은, 무기력한 수동적 존재에서 주체적 존재로 거듭나는 과정이었으며, 자신이 겪었던 부당한 현실을 해석하며 생겨난 변화를 요구하는 특정한 가치 지향이 일종의 당위로서 내재적으로 자리 잡히며, 적극적인 활동가로 정체화하는 과정이었다.

물론 교육에 대한 불만은 반학교문화적인 개인적 일탈과 반항으로 머무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불만이 집합적 행위로 조직화되고, 교육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변화까지 추구한 운동이 형성될 수 있기

위해서는 다른 계기가 필요했다. 학교 안팎을 쇄도했던 전교조로 대표되는 교사운동과 (대)학생운동이란 기존 사회운동의 움직임이 바로 그것이었다. 많은 구술자들이 지적했듯이, 중·고등학생들은 1987년 6월 항쟁이란 민주화라는 사회적 변화를 시위의 풍경, 신문과 방송, 또 가족과의 대화 속에 일종의 '분위기'로 체감하는 가운데, 민주화와 사회변혁을 지향했던 당시의 사회운동과의 접점을 형성하며 그들의 영향을 받았다. 학교 내에서는 전교조 교사들로, 열악한 교육 현실을 바꿔내기 위한 다양한 실천의 일환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안적 교육 활동을 펼쳤다. 전교조 교사가 있는 학교를 다닌 구술자들은 그들을 통해 대안적 교육의 가능성을 경험하는 동시에, 사회 현실에 눈을 뜨는 일종의 '의식화'(구술자 A)를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에서는 조직적 차원으로 학생사업국을 편성, 학생과의 연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나가며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이용관 1989, 268-27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외 2011, 96-102; 구술자 M).

학교 밖에서는 (대)학생운동이 존재했다. (대)학생운동에 참여하던 가족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거나, 그들이 소지한 사회과학 책을 우연히 보는 것을 통해 의식화를 경험하며 고등학생운동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구술자 R 등). 이렇게 (대)학생운동은 중·고등학생에게 일종의 의도치 않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었던 것뿐만 아니라,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전개했다. 운동의 재생산, 즉 후속 세대를 양성하려는 의도였다. 그 첫 사례는 '의식화 편지'로 알려진 1986년, 연세대 총학생회가 사회 현실을 고발하는 편지를 중·고교생들에게 보내자고 독려했던

운동이었다(중앙일보 1986/06/26; 경향신문 1986/06/26). 서울지역사범대학생 회협의회의 주관으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주학교’라는 교육프로그램이 연세대에서 진행되기도 했다(구술자 N, O, P, Q). 특히 6월 항쟁을 전후하여 거리나 학교에서 나타나는 중·고등학생들의 움직임에 감지하면서, 일군의 (대)학생운동 출신의 활동가들이 조직적·개인적 차원으로 합법 공개단체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거나 비공개 소모임 등을 구성하며 고등학생들과의 접점을 형성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지도’라는 행위를 통해 한국 사회의 진단과 그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담론과 전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활동에 필요한 조언과 지원을 해줬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교사운동 및 (대)학생운동과 고등학생운동의 관계가 결코 수직적이고 수동적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가령 (대)학생운동 출신 활동가의 지도 수용은 “나의 고민을 더 성장시키고 싶은데 (...) 학교에서 이런 활동으로 이렇게 조직하고 싶은데 (...) 어떤 방식으로 애들을 조직해야 잘 먹히는지 막 이런 고민들을 풀고 싶은”(구술자 J) 활동의 능동적 차원의 결과였다. 특히 고등학생운동의 활동가들은 지도가 현실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 다른 지도선을 찾거나 독자적인 실천을 모색했다.

이렇듯 일군의 중·고등학생들은 교사운동과 (대)학생운동에서 강한 영향을 받으며, 개인적 반항이 아닌 집단적·조직적 차원의 사회운동으로,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러한 과정은 운동의 여파 효과는 물론, 세대 간의 연계를 통해 한 세대의 특정한 정치적 가치와 태도가 후속 세대에게 전파되고, 내재화되어, 그 정치적 가치가 재생(regeneration)된 것으로도 이해되어야 한다.

2) 정체성 형성과 그 내용: 민중을 지향하는 사회변혁의 주체로

역압적 교육 현실 아래 기존 사회운동의 영향 속에 일군의 고등학생들은 일회적·단기적인 저항이 아닌, 지속적·집단적인 저항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특히 사회운동의 집합적 정체성 형성에는 ‘우리(we)’ 즉, 특정한 집합적 행위자로서의 자기 인식이 동반된다. 이 연구는 운동 참여자에게 어떤 집합적 행위자의 자기 인식이 이뤄졌는지 주목하는데, 이는 참여자의 변화에 있어 일차적인 준거점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운동의 집합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과 관련, 델루치가 설명한 (1) 행동의 목표, 수단, 장에 대한 인지적 정의 (2) 관계 네트워크의 형성 (3) 감정적 투자와 그에 따른 결속이라는 구성 요소란 틀을 통해 간략히 살펴본다.

고등학생운동은 인지적 정의 중 행동의 목표와 관련, 사회변혁의 추구와 더불어 대중의 이해 요구에 대한 접근의 차원으로, 교육 문제 등 일선 학교의 학생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설정할 것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었다. 수위 높은 요구와 활동 속에 학생들의 참여가 고도의 정치적 의식을 지닌 소수의 학생으로 국한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 “고등학생들의 이해 요구 실현을 위한 고등학생 대중운동이어야 한다”(임재환 1989)는 반성이 반영된 것으로, 소수의 전위활동 대신 대중운동으로의 지향을 나타낸 것이다. 기존 사회운동의 영향, 즉 (대)학생운동의 ‘대중화 전략’(조대엽 2007, 152)과 그 경험이 전파되어 반영된 것으로, 특히 사학재단 비리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사학 민주화 투쟁의 출현(유윤종 2007)과 맞물리며 그 당위가 확산되었다. 활동의 장(field)은 대중운동적

지향에 따라 '학교'로 설정되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곳부터. 자기가 있는 곳부터”(구술자 K)라는 판단과 “우리가 뭔가 싸워서 해방구로 만들 수 있을 거 같은 대상”(구술자 J)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인지적 정의 중 '수단'은 의제와 저항 수단으로 나뉘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자의 경우, 대중운동의 지향에 따라 개별 학교의 현안 문제가 고려되면서도, 운동진영 차원에서 입시교육 문제와 더불어 특히 직선제 학생회 건설과 자율적 운영이 중요 과제로 설정되었다. “교육의 삼주체라 얘기하면서, 우리는 늘 그 가르침을 받아야만 하는 대상으로 맨날 지도, 훈육의 대상”(구술자 F)으로 삼는 것에 대한 상징적 저항이자 공식적인 자치기구를 구성해 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술적인 판단, 또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해 학교 내 재생산 구조(구술자 B)를 만들고자 한 의도가 반영된 것이었다. 이 역시 (대)학생운동의 성공 경험이 차용된 것이었다. 후자의 경우, 학교 내 소모임과 동아리 구성을 시작으로 유인물 배포에서부터 농성과 시험 거부라는 강도 높은 저항이 정세에 맞춰 사용되었다. 한편 많은 참여를 가능케 하기 위해 종이비행기를 일시에 날리는 시위가 일종의 레퍼토리로서 유행하기도 했다(구술자 C, K).¹⁾

관계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그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감정적 투자와 결속 역시 이어졌다. 관계 네트워크의 경우, 학교별 소모임을 바탕으로, 학교 간, 지역적 차원까지 관계가 형성됐다. 이런 연계는 기존 친분관계(구

1) 목표와 수단을 결정하는 과정은 결코 완만하게 진행되지 않았는데, 많은 구술자들은 모임 내 혹은 모임 간에서 목표, 수단 등 운동의 노선을 둘러싸고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졌음을 지적했다.

술자 T)나 거점 역할을 수행한 공개단체 등을 경유하며 이뤄졌다. 특수성을 지닌 실업계 학생들의 모임이 구성되거나 광주와 부산 등지에서는 고등학생대표자협의회, 즉 학생회라는 공식 기구의 학교 간 연합 조직이 건설되는 등 다양한 양태를 보였다(양돌규 2006; 구술자 C, D). 자연스레 감정적 투쟁 및 결속 역시 동반되었는데, “만나는 사람들이 좋았고 친하게 되고 (...) 끈끈한 인간적 유대나 친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없었다면 오래 할 수 있었을까”(구술자 I)처럼 활동의 지속을 가능케 했다. 결속은 술자리라는 일상적 계기를 통해서나 학교나 정부 당국의 탄압이란 외부적 요인과 고등학생운동의 열사라 불린 김수경, 심광보, 김철수의 죽음²⁾이라는 사건 속에 강고해졌다. 고등학생운동을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늘 탄압받는, 탄압받는 자로서의 동질감”을 느끼며 “정말 5분 만에 친구가, 막 오래 알았던 사람처럼, 그런 친밀감을 되게 빠르게 형성”(구술자 J)할 정도로 진영 차원의 결속까지 나아갔다.

이런 집합적 정체성의 형성과정에는 참여자들이 자신들을 특정한 ‘우리(we)’로의 인식, 즉 집합적 행위자로의 구성 과정 역시 수반된다. 여기에는 참여자들이 기존 억압적인 사회가 자신들에게 부여하는 특정 가치를 거부하는 대신 새로운 자기 긍정적(self-affirming)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이 함께 진행된다(Taylor and Whittier 1992, 111). 결론적으로, 고등학생운동 참여자들은 청소년인 자신을 미성숙한 존재로 여기고, 학생다움을 요구하며 저항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회의 억압적인 시각을 거부하고,

2) 1990-91년에 나타난 이들의 죽음과 고등학생운동진영의 대응에 대해서는 양돌규(2006, 108-117)와 임미리(2017, 143-152)를 참고하라.

긍정적 가치 부여의 차원으로 역사적 저항 사례를 바탕으로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정치적 주체로 스스로를 자임해나가는 동시에 기존 사회운동이 상정했던 민중에 대한 강한 지향성을 보였다.

당시 사회는 고조되었던 중·고등학생들의 저항에 대해 청소년들을 독자적 사고를 할 수 없는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기존 통념에 근거해 부정적 가치를 부여했다. 가령 저항을 “사주·선동”을 받은 결과로, “어린 학생들이 뭘 안다고”, “너희는 공부만 하면 돼”라는 반응은 그 대표적 사례였다(신동아 1989/08). 이에 운동진영은 중·고등학생들이 이미 “충분한 자각 능력과 가치판단의 능력을 보유하는 등 사고의 조직화가 대강 완성”(이수진 1988)되었다면서, 그 저항의 정당성을 옹호했다. 이는 중·고등학생과 그들의 저항에 일종의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고자 했던 시도였는데, 특히 “고등학생도 역시 사회 건설의 당당한 주역”(임재환 1989)이라며 성인처럼 정치적 주체이자 그 자격이 있음을 주장했다. 그 근거로, 청소년이 참여한 광주학생항일운동과 4·19혁명 등 역사적 사건이 제시되었다(이경만 1990). 실제로 일종의 의례적 차원으로, 해당 기념일에 학생주간 선포와 거리집회 등 기념행사가 연례적으로 열렸다. 역사적 사건을 다시 소환했던 건, 과거 청소년들이 한국사회를 뒤흔든 저항을, 현재 고등학생 운동을 전개하는 ‘우리’와 자신들의 ‘저항’으로 묶어내며, 과거의 그들을 계승하는 일종의 ‘역사적 주체’(Muller 1994, 254)로 자임한 것이었다.

“4·19, 학생의 날 행사를 했던 이유는 유일하게 역사적으로 보면 대표적인 고등학생들이, 중고생이 주도했던 운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

그때 4·19하고 학생의 날을 기리는 행위는 고등학생이 사회적으로 이런 혁명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행위였던 거 같아요. 그리고 뭐 그때 뭐 노동자, 농민, 학생 (...) 그 삼대세력이라 했잖아요. 거기에 항상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도 끼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 그 고등학생이 뭐 선봉에 서서 세상을 바꾸자든가, 변혁하자든가 그런 식으로. 구호도 그랬던 거 같고” (구술자 D)

이는 “자기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사회 전반의 모순과 억압구조를 인식해 가고 있으며, 이는 교육 현장의 모순을 뚫고 전체 변혁 운동의 대열에 앞장설”(이수진 1988) 것이란 주장처럼, 기존 사회운동과 같이 고등학생운동 역시 사회변혁의 일익을 담당할 것을 천명하는 것이었다. 참여자들 역시 변혁을 당위로서 내재화했다. 『사이공의 흰옷』 뭐 이런 책이 있어요. (...) 그 외세나 그 군부에 저항에서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그 쫓겨난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 그런 흐름이 있어야 되고, 나도 일익을 담당해야겠다”(구술자 G), 그 책과 만나치 투쟁을 다룬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이 활동가들에게 필독서였음은 자신들을 변혁적 주체로 여긴 것이 반영된 결과였다. 이 자기인식은 “품성론”, “혁명적 윤리관”(구술자 B, R) 등 일상에서 다른 친구와 학생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 활동가로서 삶의 태도를 체화하는 것으로까지 나타났는데, 집합적 정체성에 수반되는 자아와 일상의 삶의 정치화(Taylor and Whittier 1992, 117)는 물론, 내적 당위가 자아의 특정한 삶의 태도로 이어진 결과였다.

변혁적 주체로서 자기 인식은 문제의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적대적

대상인 ‘그들’의 규정과 맞물렸다. 그 일차적 대상은 학내에서 부딪힌 교사들이었다. 갈등이 격화되며 그들은 일종의 “적”으로, “학교 측에 빌붙어서 그렇게 했던 인간들이 인간으로 보이”지(구술자 K, G)않을 정도였고, 적대적 의식은 전교조와 학생을 탄압했던 일선 장학사나 문교부까지 확대되어, ‘구사대’란 용어를 차용해 그들을 ‘구교대’로 부르는 것으로 이어졌다(양돌규 2006, 94). 변혁의 수행이라는 자기 인식에서 적대관계는 경찰, 국가 등의 체제까지 확대됐다. “전투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니까 정말 그 악의 무리와 (웃음) (...) 자본가도 있고, (...) 뭐 웃기지도 않은 전투환, (...) 경찰, 나부랭이들, 정보과, (웃음) 그랬던 거 같아.”(구술자 H)

기존 사회운동의 영향을 통해 당시 사회운동이 상정했던 변혁 주체로서 ‘민중’(김원 2003; 이남희 2015)은 고등학생운동 진영에서 궁극적인 지향 대상으로 설정되었다. 운동의 존재 근거로도 민중이 언급되었는데, 중·고등학생은 “민중의 아들딸”(정승민 1989)로, “일상생활 속에서 계급성을 체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이 부모의 자리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으며 “민중의 이익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유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외국의 혁명 사례처럼 민중 속에서 “민중운동의 기폭제”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임재환 1989; 이수진 1991). 대학생은 중산층으로 신분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층민중과 분리될 수 있다는 비판적 인식 그렇기에 중·고등학생들의 운동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존재론과 맞물렸다.

“우리는 민중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고등학생운동은 대학생운동하고는 그런 점에서 구분될 수 있다 그렇게 본거죠. (...) 대학생들은 기층 민중이 되는 건 아니라고 본거죠. (...) 그 당시에는 대학만 졸업하면 취업이 되고, 어쨌든 대학에 가면 무언가 된다는 분위기였으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기층 민중이 되는 거고 대학을 가면 소위 말해서 중산층 이상, (...) 기층 민중하고 바로 연계되는 것이 고등학생운동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들 자신이 기층 민중이라는 자각이 있었던 거죠. (구술자 B)

이렇듯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입시 경쟁교육의 현실 속에서 불만을 느끼고 있었던 일군의 중·고등학생들은 학교 안팎에서 전교조로 대표되는 교사운동과 (대)학생운동과의 접점을 통해 그들의 직·간접적인 영향 아래, 일시적이고, 개인적인 반항이 아닌 고등학생운동이란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사회운동 차원의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해낼 수 있었다. 이는 이전 세대의 정치적 경험과 그 지향이 후속 세대로 전파되며 재생된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한편, 고등학생운동의 집합적 정체성이 형성되면서, 특정한 ‘우리’, 집합적 행위자로서의 자기인식 과정 역시 수반되었는데, 4·19혁명 등 역사적 사건을 근거로,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정치적 주체로 스스로를 자임해나가는 동시에 기존 사회운동이 상징했던 민중에 대한 강한 지향성을 보였다. 이러한 집합적 정체성의 성격은 참여자에게 변화의 일차적 준거점으로, 참여자의 고교 졸업 이후 진로 선택, 즉 생애적 차원으로 20대의 삶을 포함해 향후 삶을 결정짓는 사회진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5. 고등학생운동 참여자의 졸업 이후 사회진출

고등학생운동은 그 참여 자격이 ‘고등학생’이란 임시적 위치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운동의 당사자로서 자격과 관련해 참여자에게는 재학 기간이란 일종의 시간적 제약이 부여되었다. 이와 더불어 참여자들은 졸업 및 성년으로의 진입을 앞두고 고등학생 이후 삶의 경로를 결정해야만 했다. 20대의 삶을 포함해 향후 삶의 미래를 결정짓는 생애적 차원의 문제인 사회진출에 있어 고등학생운동 참여자들은 당시 사회가 우위적 가치를 부여한 대학 진학 외에도 노동자 민중운동 참여와 고등학생운동 지도, 진로 등의 다양한 진출 경로를 모색하고 선택했다. 이를 가능케 했던 것은 고등학생운동의 참여 경험, 그 집합적 정체성의 영향이었다.

1) 사회진출 문제의 출현: 집합적 정체성의 영향

당시 사회는 삶의 미래를 결정짓는 진로에 있어서 명문 대학으로의 진학에 대해 우위적 가치를 부여했다. 학교교육 역시 입시교육 그 자체였다. “인생의 전부가 공부는 아니다. 하지만 학생의 전부는 공부다. 대학은 가야 한다. 이유는 없다. 무조건 해라. 낙오자가 되지 않으려면 죽기 살기로 해라. 3년이 50~60년을 좌우한다.”(청소년연론운동공동체 ‘우리소리’ 1990, 89) 학생들은 “사당오락(네 시간 자면 대입에 합격, 다섯 시간을 자면 탈락)이고, 네 시간 자야 되고, 인간됨을 다 포기”함을 각오하면서까지(구술자 M) 입시 경쟁에 매진할 것이 강조됐다. 고등학생운동 참여자들 역시 운동

참여 이전에는 대학 진학에 대한 희망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가령 인문계 학교를 다닌 구술자들은 물론, 실업계에 있던 구술자 C 역시 대학 진학을 열망해 특례 입학 자격에 필요했던, 빨라야 다른 사람들이 2학년에 취득하던 부기 2급 자격증을 1학년에 취득했다고 기억했다. 그러나 고등학생운동에 참여하며, 대학 진학을 유일한 경로로 여기지 않는 태도가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교육에 대한 문제의식과 결부된 것이었다.

“그 잘난 졸업장을 위해 밟히고 밟는 공부가 아닌 더불어 살 수 있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 (...) 내 몸의 일부가 되기까지 (...) 나를 몰고 갔던 것들이 진실이 아니란 걸 하나둘씩 깨달으면서 (...) 난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하며 내 삶을 걸고 행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청소년언론운동공동체 ‘우리소리’ 1990, 89)

당시 고등학생운동은 보충학습철퇴운동, 자살학우추모제 등 경쟁만을 강요하는 입시교육에 문제를 제기하며, “참교육”으로 대표된 인간적인 교육을 강하게 주장했다(유윤총 2006). 특히 운동의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또 강하게 수용해가며 입시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활동가적 정체성을 포기하는 행위로, 가령 “공부를 하기 위해서 활동을 소홀히 하는 게 용납이 안 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건 이기적인 거고, 음. 너는 뭐 입시 경쟁주의가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거나 내지는 거기에 편승”(구술자 H)한다고 여기는 분위기가 나타났다. 나아가 사회과학 서적을 읽는 세미나 등을 통해 입시교육이 알려주지 않는 진정한

앞을 배웠다고 인식하며, 심화된 학습 과정으로서 대학에 진학할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 태도 역시 등장했다. “대학 간다는 걸 되게 우린 싫어했어요. (...) ‘넌 왜 대학 가려고 그래? 바로 현장 가야되는 거 아니냐?’ 했죠. ‘대학 가서 뭐 할 건데, 배울 만큼 배웠고 알만큼 아는데 가서 대학 생활 또 하려고?’”(구술자 1)

대학 진학을 우위로 여기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20대의 삶과 향후 삶의 미래를 결정짓는 졸업 이후 사회진출과 관련, 다른 진로로의 고민과 선택을 위해서는 대안적인, 즉 우위적인 가치가 부여되는 진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만 했다. 운동의 집합적 정체성에 내재된 집합적 행위자로서의 자기인식, 즉 변혁 주체로의 인식과 민중 지향은 이를 가능케 했다. 고등학생운동의 참여자들은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주체로 자임하며, 한국사회 모순을 해결하는 변혁 주체로 여겨진 민중이 되어, 민중이 변혁의 주체가 되도록 일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녔다.

“노동자가 현실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거짓 교육의 산물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학생회장이고 성적도 좋고 해서 부모님 같은 삶을 살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 혼자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올바르게 교육을 받으며 바른 노동자의식을 갖고 앞으로 훌륭한 노동자가 되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간 말 1989/10)

대학생은 민중으로의 삶을 방기할 수 있는 집단으로, 그 진입은 “기득권”을 갖는 “신분의 차이”까지 생길 수 있는 일종의 부정적 선택으로 여겨졌으며(구술자 H), 반대로 민중, 특히 육체노동자는 긍정적 대상으로 설정되었다. “우리 사회가 되게 모순투성인데 (...)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주력 부대는 노동자다 (...) 지식층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된 거고, (...) 내가 거기 주력 부대에서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구술자 F) 기존 사회운동 특히 변혁 운동 조직이 고등학생운동을 주목하고, 조직사업을 진행한 이유 역시 고등학생은 졸업 후 취업을 해도 대학생과 달리 ‘위장 취업’ 혐의를 받지 않는다는 점, 또 일종의 조기 교육을 통해 경험이 충분한 활동가를 일찍이 배출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었다(구술자 N). “고교 졸업 후 사회 각 계층에게 이전하게 된다. (...) 고교생 시기부터 노동운동가를 양성하여 이전시키는 것은 결코 꿈같은 일이 아니다. 생각해보라. 18~19세 어린 노동운동가들이 의젓하게 노동 현장에 뛰어드는 모습을.”(정승민 1989)

진로 선택에 노동자 민중에 대한 지향이 출현하고 긍정된 건 문화적 차원으로, 당시 사회운동진영이 재현한 상상화된 노동자 민중의 상(김원 1999)을 적극 수용한 결과이기도 했다. 문화적 작품은 그 매개체였다. “현대중공업 그쪽인데 이 확성기 있고, (...) 그런 걸개 그림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노동자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되었던 거 같아요. 선망을 가졌던 거 같아요. 그리고 뭐 음 노래 가사나 이런 것들도 많은 영향을 준 거 같아요. 철의 노동자 막 이런 거 (...) 『파업』도 읽고.”(구술자 H) 아울러, 당시 민중운동의 성장이 가져온 사건들과 변혁적 전망의 기대 역시 한몫했다.

많은 구술자는 6월 항쟁, 7·8·9노동자대투쟁,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출범, 1991년 5월 투쟁을 일종의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사건으로 인식했다.

“노동자 투쟁을 경험을 우리가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서고련이나 고등학생들 모임 안에서도 (...) 사회적 진출에 대해서는 이게 정답이구나. 우리가 이제 학습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확인하니까요. (...) 책으로 봤던 것들이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우리가 거기서 같이 해야 되겠다. (...) 고등학생운동 안에서 그게 주류적 사고였어요. 인문계든 실업계든 간에 (...) 노동자들의 폭발적인 투쟁들이 이루어지고 했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하면 세상이 진짜 바꿀 수 있는 거구나.” (구술자 1)

정리하자면 참여자들은 고등학생운동의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수용하면서 입시교육과 대학 진학에 의문을 갖고 비판을 제기했으며, 또 강한 민중 지향성을 띤 변혁 주체로서의 자기 인식과 변혁 전망 아래 대학 진학 대신 노동자 민중운동 등의 참여를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하기 시작했다. 즉, 집합적 정체성의 영향으로 졸업 이후의 진로, 즉 20대의 삶을 포함해 향후 생애를 결정할 문제인 사회진출과 관련, 대학 진학 대 대학 진학 거부 및 노동자 민중운동의 참여라는 일종의 이항대립적인 고민이 나타났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진출의 경로를 결정한 것이었다.

2) 사회진출을 둘러싼 갈등과 결단, 운동 내 사회진출 문제의 소멸

운동의 적극적 참여자를 중심으로, 대학 진학 대 대학 진학 거부 및 노동자 민중운동의 참여라는 이항대립적 고민 아래 대체적으로 선택된 사회진출 경로는 대학 진학과 학생운동 참여, 대학 진학 거부 및 노동 현장으로의 진출,³⁾ 고등학생운동 지도·지원 활동이었다. 참여자들이 진로를 결정한 시기는 고등학교 3학년 진학을 앞둔 시기였다. 이전에도 운동의 참여 속 기존의 학생 상에 의문을 구하며, 대안적 삶에 대한 고민과 토론은 늘 나누었지만(구술자 D, N), 고 3 시기 이전은 아직 추상적 논의에 그쳤을 뿐이다. 늦어도 3학년 1학기에는 시험 준비 등을 이유로 실질적 결정을 내려야 했다. 학교별 소모임에서는 변혁 운동과의 관계를 통해 대학 외 다른 진출 방안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구술자 A), 공개단체에서는 참여자들에게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등 사회운동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관련 활동가를 초청하는 일종의 진로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구술자 F, R). 변혁운동과 연계된 소모임에서는 방학 중에 구로공단의 마

3) 노동운동 참여는 1980년대 (대)학생운동 참여자들이 사회변혁을 추구하기 위해 노동운동으로의 이전 및 진출을 선택한 것과 유사했다(오하나 2010; 유경순 2015). 짚어야 할 지점은 1980년대 중후반 시기 학생운동 진행 내 주류인 NL그룹을 필두로 애국적 사회진출론과 청년운동론이 제기되며, 노동 현장으로의 이전 경향이 점차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은수미 2006) 새롭게 등장한 고등학생운동은 노동 현장으로의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는 점이다. 한편, 노동운동의 현장에서 여타의 이유로 철수할 경우, 대학생 참여자의 경우 학교로 복귀해 학생운동에 다시 참여하거나 학업을 마칠 수 있었지만, 고등학생운동 참여자의 경우는 원점에서 자신의 삶과 운동의 진로를 새롭게 모색해야 했다.

찌꼬바(영세공장)에서 공장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노동소설 등을 통해 ‘추체핍’한 노동자의 삶을 실제로 경험하는 계기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 데 혹은 이미 결정했던 노동 현장 진출의 의지를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구술자 F, H).

진로 중 우위로 여겨졌던 건 대학 진학 거부와 노동운동 참여였으며, 이에 따라 다른 진로를 선택한 참여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다. 가령 노동운동을 선택한 참여자들이 대학 진학을 선택한 참여자에게 배신감을 느끼면서(구술자 K), 가령 “자유주의자”라는 비난(구술자 U)을 가하며 감정적 차원까지의 갈등이 일어났으며(구술자 A, I), “대학 선택한 애들이 위축되고, (...) 되게 자신 없”고(구술자 H) 죄책감을 느끼는(구술자 G) 경우가 나타날 정도였다. 한편, 고등학생운동의 지도·지원 활동 역시 이항대립적 고민과 무관하지 않았다. 이 역할을 선택한 대부분의 구술자들은 대학 진학을 부정적으로 여겼는데, 가령 구술자 A는 부모와의 갈등으로 대학 진학을 했을 뿐 졸업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학 진학을 선택했더라도, 일종의 죄책감 속에서 (대)학생운동 참여는 당연시되었는데, “노동자의 삶을 살지 않더라도 운동이나 변혁에 도움이 되는 일은 해야겠다”며, 예컨대 학과의 선택조차 당초 희망한 학과 대신 변혁운동의 이론적 기여를 위해 사회과학 분야를 선택한 경우도 있었다(구술자 G).

진로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진로는 20대의 삶을 포함해 향후 자신의 생애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였기 때문에 구술자들은 내적으로 긴 속고를, 또 조직적 차원에서도 장시간의 논의가 오고 갔음을 기억했다. 특히 대학 진학에 비판적 문제의식이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우위적 가치

가 부여된 노동운동을 선택하는 건 ‘결단’이 필요한 문제였다. 이는 대학 진학을 위한 부모의 기대를 저버린다는 점에서 갈등을 각오해야 했고, 결국 가출을 선택할 정도(구술자 K)로 부모에 대한 설득은 쉽지 않았다. 내적 주저도 존재했다. “저는 노동자와 함께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선배가) 막 성냈어요. ‘네가 노동자로 사는 거지, ‘함께’라는 표현을 그렇게 쉽게 쓰면 안 된다.”(구술자 I) 그들에게 요구된 이상적 주체는 변혁의 주체로 각성해야 할 일반 노동자에게 뿌리내린 노동자 그 자체였다. 그러나 공장이란 낯선 세계에서 경험하지 못한 육체노동을 해야 하는 것, 변혁의 순간은 반드시 올 것이라 믿지만 그 구체적 기약은 알 수 없는 채, 끝도 없이 반복되는 열악한 공장의 일상과 육체적으로 고단한 삶을 자신이 버텨낼 수 있을지는 확신이 서지 않을 뿐더러 두려운 일이기도 했다. 노동자 계급의 사회주의 혁명을 지향했던 모임에 속한 구술자 C는 당시의 고민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공실위 제안서를 쓰고, 노동자의, 계급의, 변혁의 주체를 이야기하고 이랬던 내가, 내 스스로가 비겁, 비겁했던 거죠. (...) 막상 ‘너, 노동자가 될 거야?’라고 나에게 물었을 때, (...) 대답을 못, 못했어요. 그렇게 글을 썼던 사람이 막상 그렇게, 그런 삶을 살래 했을 때 대답을 못했었죠. 그 이유는 엄마 아버지가 노동자로서의 삶이 어떤 건지 봐왔던 것도 있지만, 내 스스로가 버텨내고 살수 있을까가 두려웠던 것도 있는 거예요. 그 니깐 굉장히 뭐 고졸자로서 살아간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두려웠던 거죠.”

자신이 놓인 상황을 고려하며, 치열한 고민 끝에 진로를 결정하면서 개인과 조직 차원에서 고 3 한 해의 활동에 대한 조정과 분담이 이뤄졌다. 노동 현장 등으로의 진출을 선택한 이들이 모임을 책임지면서, 대학 진학을 선택했던 이들은 고 3 시기 활동을 한 달에 한 번 모임 참석으로 줄이며 입시에 전념하곤 했다(구술자 F, R). 참여자와 모임의 상황에 따라 재수를 선택하고 활동에 계속 참여한 사례도, 또 입시와 활동을 병행한 사례 역시 존재했다(구술자 A, H, G, T). 대학 진학을 선택하지 않았던 이들 역시 고 3 시기를 활동과 사회진출 준비로 바쁘게 보냈다. 노동 현장을 준비한 이들은 준비 소모임을 만들어 대중활동가론, 노조 활동 기초이론 등 노동운동을 위한 학습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거나 노동운동으로의 연결과 진출 사업장을 지정해줄 소위 '조직선'이라 불린 이들과 계속된 만남을 이어나가며(구술자 F, I, R 등), 졸업 이후 노동 현장의 삶을 준비했다.

운동모임에 따라 사회진출의 양상이 달랐지만, 졸업 이후에도 참여자들은 선택한 진로에 따라 사회운동에 참여했던 것은 유사했다. 대입 후 학생운동에 결합하거나(구술자 G, S) 혹은 학교에 적을 걸어둔 채 주된 역할을 고등학생운동을 지원·지도하는 역할에 쏟는 이들도 있었다(구술자 A, T). 물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채 지원·지도 활동을 하던 사례도 있었다(구술자 E). 대공장 혹은 국가기간산업으로의 진출의 사례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구로공단으로 취업을 선택했다. 특히 1992년에는 대거 진입하던 고등학생운동 출신 활동가들을 지칭하기 위해 현장에서 학출, 노출이란 용어에 빗대어 고출이란 단어가 나올 정도였다(구술자 R 등). 이러한 운동 참여자의 배출은 기존 사회운동의 영향 아래 형성된 고등학생운동이 다

시 기존 사회운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대학 진학 외의 선택을 가능하게 만든 이항대립적 고민과 사회 진출 문제는 1992년 이후 사라지기 시작한다. 사회진출 문제에 있어 이항대립적인 논의의 한 축이던 노동자 민중운동의 참여에 대한 고민과 그 선택이 점차 줄어들었다(구술자 N). 노동 현장에 진출했다가 적응에 실패하며 이탈했던 선배들의 소식은 노동 현장으로의 이전을 “두렵고 겁이 나는데 굳이 가야”하는지 고민스러운 부정적 선택지(구술자 L)로 여기게 했다. 무엇보다 현실 사회주의 붕괴에 영향을 받은 변혁 운동의 쇠퇴, 문민정부가 수행한 절차적 민주화 등에 따라 사회변혁에 대한 전망 상실의 경험은 대학 진학 외 노동자 민중운동 참여라는 진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수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 “아예 노동 현장에서 전망으로 찾는 걸 그 이후에는 하지 않았죠. 그냥 대학에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로 바뀐 거예요.”(구술자 A) 동시에 일반계 고교의 경우 85년에 53.8%에서 95년에는 72.8%로 대학진학률이 대폭 상승했던 현실, 즉 고등교육의 대중화(교육인적자원부 2003) 역시 이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러한 추세는 고등학생운동의 하강기 즉, 소멸과정과 맞물린 것이었다. 특히 고등학생운동은 1990년대 중반 전후에 소멸되었고(양동규 2006, 128), 운동 참여자의 사회진출 문제 역시 역사 속에서 함께 사라지고 만다.

6. 결론

그동안 민주화운동사에서 다뤄지지 않은 고등학생운동 참여자들의 졸업 이후 사회진출과 이에 영향을 미친 고등학생운동의 집합적 정체성의 형성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80년대 중후반 형성된 고등학생운동은 기존 사회운동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바탕으로, 반학교문화적 차원의 개인적·일시적인 반항과 일탈과는 달리 사회운동의 차원으로 조직적이고, 집단화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중·고등학생들이 경험하는 교육 현실의 변화 요구에 그치는 것이 아닌 사회 전반의 변혁을 지향했던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었다. 둘째, 중·고등학생을 미성숙한 존재로 여기며 그들의 저항을 폄훼했던 기성세대 및 기존 사회의 시각을 거부하며, 과거 청소년이 참여했던 역사적 사건을 근거로 사회변혁을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변혁의 주체인 민중을 지향하는 집합적 행위자로서 자신들을 인식해나가며 또 그런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는 내적 당위를 적극적으로 형성, 수용했다. 셋째, 이러한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20대의 삶을 포함해 향후 삶의 미래를 결정짓는 생애적 차원의 문제인 고등학교 졸업 이후 사회진출과 관련, 사회가 요구한 대학 진학 외에도 노동운동 참여 등 다른 진로를 선택할 수 있었다. 이는 참여자에 있어 운동 참여의 의지가 고등학생운동 혹은 고등학생이란 일정한 시기로 국한된 것이 아닌 삶의 장기적·전반적 차원까지 확장되었던 것, 나아가 진로 선택이라는 자기 삶의 미래 구상에 있어서도 운동진영이 준거집단이 되고 자신이 지향한 가치를 실현하려 했던 점이 반영된

결과였다. 넷째, 이런 의미에서 고등학생운동은 그 운동의 목표를 실현하는 단기적 시도로 그쳤던 것이 아닌, 참여 경험을 통해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내적 당위 등 삶의 가치에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일종의 중장기적인 효과를, 나아가 다른 운동으로의 참여를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사회와 사회운동진영 전반에 폭넓은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첫째, 단절론적인 세대논의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생운동은 교사운동과 (대)학생운동이란 기존의 사회운동진영의 직·간접적 영향을 통해서 출현했으며, 사회변혁을 추구했던 운동 성격과 기존 사회가 요구한 대학 진학 외에도 노동 현장으로의 진출 등 다양한 사회진출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 역시 그 영향 때문이었다. 이 연구는 새롭게 출현하는 한 운동에 있어 기존 운동의 영향을 확인해준다는 점을 넘어,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세대론적 논의, 즉 세대의 구분 속에 정치적 의식과 형성 과정 등의 차이를 과도히 부각하는 주장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세대별 경험의 차이와 그것이 정치적 태도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논의는 만하임(Mannheim)이 제기했던 세대위치에 따라 경험이 달라진다는 즉, '경험의 성층화'에 기반해 있다(박재홍 2017, 31). 그러나 한 세대의 정치적 태도와 의식의 형성에서 이전 세대의 정치적 의식과 태도가 외재적인지, 정치사회화 과정이 특정 세대 내에만 국한되어 진행되는 단절적 과정인지 물음을 던져볼 수 있다. 고등학생운동은 소위 신세대나 정보화 세대로 명명되어 왔던 1970년대 이후 출생자가 주축이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86세대로 대표되는 기존 1980년대 (대)학생운동

진영이 이들에게 강한 영향력과 그 흔적을 남겼음을 보여줬다. 즉, 한 세대가 형성했던 특정 정치적 가치와 그 경험이 후속 세대에게 전파되어 다시금 재생된 사실을 드러내는 것으로, 연구는 특정 세대의 정치적 태도 등의 형성이 단절적인 과정이 아닌 이전 세대와의 연계와 그 영향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주장하며, 단절론적인 세대론을 경계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둘째, 사회운동 간 관계와 그 영향은 일방향적인 것이 아닌 상호작용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고등학생운동은 즉 교사운동과 (대)학생운동의 직간접적인 다양한 영향을 받으며 그 내용을 형성할 수 있었다. 마이어와 위티어가 제기한 기존 사회운동이 새롭게 출현하는 사회운동에 영향을 준다는 여파 효과를 다시금 확인한다. 그러나 고등학생운동 참여자들이 졸업 이후 다양한 진로로의 사회진출을 선택하고 고등학생운동을 넘어 다른 사회운동의 영역으로 진입해 운동의 참여를 진행했다는 점 역시 확인했다. 다시 말해, 기존 사회운동의 영향을 받아 출현했던 고등학생운동이 역으로 기존에 존재하던 사회운동에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연구는 운동과 운동 사이의 관계와 그 영향이 단순히 일방향적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복합적으로, 또 상호작용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특정 사회운동이 가져온 결과를 그 운동이 내건 정치적 차원의 목표와 그 실현 여부로만 판단할 것이 아닌 참여자의 생애적 차원의 변화 등을 포함하여 보다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생운동은 교육 현실의 변화와 더불어 사회변혁의 목표를 내걸고 다양한 활

동을 펼쳐왔지만 1990년대 중반에 운동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소멸되었다. 그 운동이 가져온 결과를 정치적 차원으로, 그들이 내세운 목표의 실현 여부로 평가한다면 운동이 가져온 변화는 미미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등학생운동은 사회변혁의 추구라는 고도의 정치적 의식을 지닌, 또 고교 졸업 이후 사회진출이라는 자기 삶의 미래의 선택에 있어 기존 사회가 강조한 대학 진학 외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고 선택할 정도로 정치적 의지가 충만한 참여자를 배출했다. 이는 정치적 목표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참여자의 생애적 차원의 변화를, 나아가 다른 운동으로의 진출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사회운동진영과 사회까지 폭넓은 영향을 미친 결과를 가져온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적 차원의 목표와 그 실현 여부에 집중하는 단기적, 도구적인 평가 틀로는 확인할 수 없다. 생애적 차원의 변화 등 사회운동이 가져오는 다양하고 폭넓은 결과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운동이 내건 정치적 차원의 목표와 그 실현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는 제한된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편,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서울 지역의 운동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는 점이다. 동일한 교육과정과 환경 속에 여러 지역의 참여자 역시 (대)학생운동과 교사의 영향 아래 ‘고등학생운동’의 이름으로 교육의 변화와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활동을 펼쳤고, 졸업 후 사회진출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서울과 유사한 경향이 각 지역에서도 나타났다고 조심스레 가정할 수 있지만, 다른 경향 혹은 그 지역적 특성이 존재했는지는 추가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고등학생운동 참여자의 사회진출 문제에 집합적 정체성이 미친 영향, 그 의미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었기 때문에 조직에 따라 혹은 참여자에 따라 사회진출 양상의 구체적 차이와 더불어 그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한 분석까지 이르지 못했다. 관련된 자료의 확보와 체계적인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진출의 선택까지 그 분석이 이뤄졌기 때문에 사회진출 이후의 삶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지 못했다. 참여자들은 졸업 이후에도, 심지어 현재까지 사회운동의 적극적 참여자나 우호적 지지자로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운동 참여라는 경험의 생애적 차원에 있어 어떻게 지속·변화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분석해야 한다. 더불어 새로운 활동 영역에서의 적응과 1990년대 변화된 정치 환경에 대한 대응, 상이한 사회진출 경로에 따른 현재까지의 참여 및 삶의 궤적 차이 등이 함께 분석되어야 한다. 넷째, 사회진출 문제와 고등학생운동의 그 소멸 과정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운동의 집합적 정체성 형성과 사회진출 문제의 출현 등에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에 그 소멸에 대한 상세한 분석까지는 이르지 못했는데, 1990년대 증반 의제와 성격을 달리한 청소년운동, 청소년 인권 운동의 출현이라는 역사적 현상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런 한계들은 계속된 후속 연구로 보완되어야 한다. ~~524~~

참고문헌

- 고동현. 2007. “저항의 기억과 의례, 정체성 형성: 1980년대 학생운동 연구.” 정철희 외. 『상징에서 동원으로-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문화적 동학』. 서울: 이학사.
- 구수경. 1997. “청소년 저항문화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 논문.
- 김귀옥. 2014. 『구술사 연구-방법과 실천』. 파주: 한올아카데미.
- 김원. 1999. 『잊혀진 것들에 대한 기억-1980년대 대학의 하위문화와 대중정치』. 서울: 이매진.
- 김용희. 2001. “‘학교위기’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고찰.” 한국교원대 석사학위 논문.
- 김재민. 2004. “한총련 정치수배자의 집합적 정체성의 사회적 구성과정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 김진균 외. 1997. “보통학교체제와 학교 규율.” 김진균·정근식 편.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서울: 문화과학사. 76-116.
- 류지영. 2001. “학교 규율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과 저항운동.”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엮음. 2010. 『한국민주화운동사 3: 서울의 봄부터 문민정부 수립까지』. 파주: 돌베개.
- 박재홍. 2017. 『세대 차이와 갈등: 이론과 현실』. 진주: 경상대학교출판부.
- 백초록. 2003. “학교 위기, 프레임 그리고 학생의 저항.” 한국교원대 석사학위 논문.
- 신진욱. 2013. “사회운동의 문화, 정체성, 프레임.” 김동노 외. 『한국사회의 사회운동』. 서울: 다산출판사.
- _____. 2018. 『한스 요아스, 가치의 생성』.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양돌규. 2006. “민주주의 이행기 고등학생운동의 전개과정과 성격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 석사학위논문.

- 오하나. 2010. 『학출-80년대, 공장으로 간 대학생들』. 서울: 이매진.
- 유경순. 2015. 『1980년대 변혁의 시간 전환의 기록 1』. 서울: 봄날의 박씨.
- 윤종희. 2005. “법인자본주의와 대중교육.” 『대중교육-역사 이론 쟁점』. 서울: 공감. 9-58.
- 은수미. 2006. “80년대 한국 학생운동이 노동운동에 끼친 영향.” 『기억과 전망』 15. 199-238.
- 이남희. 2015. 『민중 만들기-한국의 민주화운동과 재현의 정치학』. 유리 외 역. 서울: 후마니타스.
- 이선미. 2007. “저항 의미들과 집합적 정체성의 상호작용: 1970-80년대 기독교 민주화운동.” 정철희 외. 『상징에서 동원으로-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문화적 동학』. 서울: 이학사.
- 이수진. 1988. “고교학생운동 시론.” 『민중교육』 2. 서울: 푸른나무.
- 이승훈. 2005. “한국 사회운동가들의 정체성 형성과정: 사회운동 참여 경험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66. 12-38.
- 이용관. 1989. “1980년대 교사의 교육운동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회 편. 『한국교육문제연구』 2. 서울: 푸른나무. 210-278.
- 이혜영 외. 1990. 『교육이란 무엇인가』. 서울: 한길사.
- 이희영. 2006. “타자의 (재)구성과 정치사회화: 학생운동 참여자의 1990년대 생애체험에 대한 사례 연구.” 『한국사회학』 4(6). 226-260.
- 임미리. 2017. 『열사, 분노와 슬픔의 정치학-한국저항운동과 열사 호명구조』. 서울: 오월의봄.
- 임재환. 1989. “민족해방운동의 일주체로서 고등학생운동 시론.” 『현 정세와 민족민주운동의 진로』. 서울: 두리.
- 윌리스, 폴. 2004(1981). 『학교와 계급재생산: 반학교문화, 일상, 저항』. 김찬호 역. 서울: 이매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외. 1989. 『민주화를 위한 교육백서』. 서울: 풀빛.

- _____. 2011. 『참교육 한길로 1-범외노조편』. 서울: 참교육.
- 전민주. 2012. “성문화(性文化) 운동가의 집합적 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 논문.
- 정수복. 2002. 『시민의식과 시민참여-문명전환을 꿈꾸는 새로운 시민운동』. 서울: 아르케.
- 정승민. 1989. “고등학생운동의 역사적 출발과 그 진로.” 『노동해방문학』 8월호.
- 정재걸. 1989. “80년대 교육지배의 정책분석.” 『동향과 전망』 6. 147-169.
- 정혜원. 2006. “청소년 사회참여의 과정과 형식에 관한 일 연구: 맥아담의 “인지적해방과 운동문화”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3(5). 155-186.
- 조대엽. 2007. 『한국의 사회운동과 NGO: 새로운 운동주기의 도래』. 서울: 아르케.
- 청소년언론운동체 ‘우리소리’ 엮음, 1990. 『푸른나무』 4. 서울: 푸른나무.
- 한국구술사연구회. 2005. 『구술사-방법과 사례』. 서울: 선인.
- Giugni, Macro. 1999. “How Social Movements Matter: Past Research, Present Problem, Future Developments.” Marco Giugni, Doug McAdam, Charles Tilly eds. *How Social Movements Matter*.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Min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xiii-xxxiii.
- Hunt, Scott A, Benford, Robert D, Snow, David S. 1994. “Identity Fields: Framing Process and Social Construction of Movement Identities.” Enrique Laraña, Hank Johnston, Joseph R. Gusfield eds. *New social movements from ideology to identity*.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85-208.
- Kiecolt, K. Jill. 2000. “Self-Change in Social Movement.” Sheldon Stryker, Timothy J. Owens, and Robert W. White, eds. *Self, identity, and social movement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10-131.

- Klandermans, Bert. 1992. "The social construction of protest and multiorganizational fields." Aldon D. Morris and Carol McClurg Mueller eds. *Frontiers in social movement theory*,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77-103.
- McAdam, Doug. 1999. "Biographical Impact of Activism." Marco Giugni, Doug McAdam, Charles Tilly eds. *How Social Movements Matter*.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Min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19-137.
- Melucci, Alberto. 1988. "Getting involved: identity and mobilization in social movements." *International social movement research*. 1. 329-348.
- _____. 1995. "The process of collective identity." Hanks Johnson and Bert Klandermans eds. *Social movements and culture*. 4.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esota press. 41-63.
- _____. 1996. *Challenging Codes: Collective action in the information age*. New York: Press Syndicate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
- Meyer, David S. 2002. "Opportunities and Identities: Bridge-Building in the Study of Social Movements." David S. Meyer, Nancy Whitter, and Belinda Robnett eds. *Social Movements: Identity, Culture, and the Stat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3-24.
- Meyer, David S and Nancy Whittier. 1994. "Social Movement Spillover." *Social problems*. 41(2). 277-298.
- Muller, Carol. 1992. "Conflict Networks and Origins of Women's Liberation." Enrique Laraña, Hank Johnston, and Joesph R. Gusfield eds. *New social movements from ideology to identity*.

-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85-208.
- Passy, Florence and Gian-Andrea Monsch. 2018. “Biographical Consequences of Activism.” David A Snow, Sarah Anne Soule, Hanspeter Kriesi eds. *The Wiley Blackwell companion to social movements(2nd ed)*. Hoboken: Wiley. 499-514.
- Tarrow, Sidney. 1992. “Mentalities, Political Cultures, and Collective Action Frames: Constructing Meanings through Action.” Aldon D. Morris and Carol McClurg Mueller eds. *Frontiers in social movement theory*.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174-202.
- Taylor and Whittier. 1992. “Collective Identity in Social Movement Communities: Lesbian Feminist Mobilization.” Aldon D. Morris and Carol McClurg Mueller eds. *Frontiers in social movement theory*.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104-130.
- Thompson, Paul. 2000. *The Voice of The Past: Oral Hi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hittier, Nancy. 2002. “Meaning and Structure in Social Movements.” David S. Meyer, Nancy Whitter, and Belinda Robnett eds. *Social Movements : Identity, Culture, and the Stat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89-308.

미디어자료

- 경향신문. 1986/06/26. “운동권 「중고생의식화」 기도 갈수록 조직화-편지발송 이어 집단 교육움직임.”
- 신동아. 1989/08. “충격보고-고등학생운동의 실상.”

월간 말. 1989/10. “고교생 좌담-‘행복은 성적순’을 거부한 학생들.”
월간우리교육. 1990/11. “중·고생운동, 그 길고긴 뿌리.”
주간인권오름. 2006/06/27.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③] “굴종의 삶
을 떨쳐 반교육의 벽 부수고”-들불처럼 번진 청소년들의 참교육 운동.”
_____. 2007/01/24.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⑧] ‘재량권 춤추는
사립학교’, 이제 그만!-사학 비리에 저항한 학생과 교사들.”
중앙일보. 1986/06/26. “「의식화편지」를 막아라.”

Abstract

**The Career Paths of High School Student Movement
Participants**

The Formation of a Collective Identity and its Impacts

Jeon, Nu-ri

Chung-Ang University, Ph.D. Course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 participants of high school student movements, which had taken place from the mid-1980s to the mid-1990s in Korea, chose their career paths aft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 and how the collective identity of the student movements had impacted their choices. Under the repression of formal school education, a group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formed a collective identity characterized by the desire for social transformation and strong minjung-orientation under the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 of the social movement which had been ongoing at the time. In particular, their self-awareness as transformative actors for the people and the prospects of social transformation had opened their eyes to a variety of career paths other than entering university, the path most valued and recognized by Korean society, such as participating in the labor movement and supporting and leading high school student movement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areer paths chosen by high school student movement participants, this study concludes as follows. First, isolated generational discourses should be treated with caution as the political consciousness of a generation forms under the mutual

influence between generations. Secon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social movements as being mutually interactive. Lastly, the outcomes of a particular social movement should be understood more broadly, not only in terms of the political goals pursued by the movement but also in terms of its impacts on the life courses of the participants.

■ **Keywords:** High School Student Movement, Social Transformation, Minjung Movement, Political Socialization, Career Path

투고 : 2019/09/30 심사 : 2019/10/23 확정 : 2019/11/18